

대 박 산은 길 이 전 한 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 주시며

600년만에 빛을 보라

주제81(1992)년 5월 어느 날 개성시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려시조왕의 가문이 대대손손 간수하여온 죽보와 옥새를 보게 되셨다.

왕씨족보와 옥새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대 조인 왕건을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시며 고려가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통일된 우리 나라의 이름을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개성왕씨족보와 왕건이 쓰던 도장을 잘 보관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고 왕건왕릉을 고려시조왕릉답게 더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개성왕씨족보와 옥새는 600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웃음과 관련한 우리말 표현을 놓고서도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사업방법과 작품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의논하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득 조선말에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시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었던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말은 생활이 만들어낸다고 하시고는 웃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조선말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말에는 웃음과 관련된 표현이 수백개나 된다고 하시며 우리 말에 웃음과 관련된 말보다 웃음과 관련된 말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마도 조선말처럼 웃음과 관련된 말이 많은것은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며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수 있다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하시었다.

국경에 깃든 사연

오래전부터 조선고유의 특산품으로 알려진 풍산개는 국가의 천연기념물의 하나였다.

주제 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에 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에 흔적을 남기셨으며 조선민족의 기상을 밝힌 풍산개를 국경으로 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올바른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풍산개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 지정되고 풍산개의 순종을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본사기자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의 역사가 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과학적으로 고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전설로만 전해져 왔다.

그것은 지난날 그릇된 역사관에 의하여 우리 민족사가 심히 왜곡되여온 데 있으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단군관세사적까지 불태워버리면서 고조선과 단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데 기인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단군을 전설속의 인물로, 한낱 신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여왔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자기의 시조상을 찾을수 있게 된것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이처럼 민족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어

일찌기 예국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 그자체라고 하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건설하는 전 과정에서 위대한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그릇된 견해나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잃었던 역사, 위대한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데 온갖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시기에 력사학자들에게 단군연구를 심화시키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고 그 연구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주체적인 역사관에 의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에게 관심받았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마침내 1993년 2월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단군유골의 발굴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실체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도록 최신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을 보장해주도록 대책하시고 연구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었다. 하여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011(±267)년전에 태어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랜 역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

웅장하게 일떠선 단군릉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것은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단군이 평양 일대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 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 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군릉건설사업에 힘써주시었다. 단군릉개건과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남조선사람들이나 해외동포들이 단군릉을 보러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수 있으므로 상들을 만들어놓는것이 좋겠다고, 지

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다것을 립증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자랑이며 민족성원모두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커다란 성과였다.

금 남조선에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이 몇십만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단군릉을 보러 올수 있으며 앞으로 북남래왕이 실현되면 대종교인들이 단군릉에 찾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단군릉을 잘 꾸려놓으면 대종교인들이 평양에 와서 단군릉을 보고 싶어할것이라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실현되면 대종교인들뿐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천년 역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역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긍지높이 전할수 있게 하여주시것은 조선민족의 대경사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홀러온 통일운동사의 갈피갈피에는 겨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숭고한 화폭들이 적지 않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경륜을 지니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묶어주시며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통일예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뜻깊은 사진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감동깊은 화폭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려고 한다.

* *
오늘도 겨레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날의 뜻깊은 사진을 추억해본다.

민족분열의 첫 기술에서 열린 력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범 김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다.

이전 《상해협정정부》 주석이였고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백범 김구.

그는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전이나 해방직후에도 공산주의자더라면 던여 놓고 배척하고 때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력사적인 민족적대회합에 참가하도록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지었다.

김구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북에서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옥죄였으며 섣뜻 평양에 올수가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계층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뒤우치고 예국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 립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구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해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과 과거를 논하려 하는것이 아

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하시었다.

예국예적으로 일관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범 김구는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합과 통일예국의 경륜에 더욱 매혹되었다.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그의 민족대단결리념, 무한한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바로 현학 오해,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단합이라는 거대한 대해로 떠밀어준 힘이었고 원천이었다.

70여년의 한생을 보내며 뒤늦게 태양의 품에 안겨 예국의 새 삶을 받아안은 백범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구절을 남기었다.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따르는 이들의 길 되리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대해같은 믿음과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로 열어준 재생의 길, 통일예국의 길로 백범 김구선생이 걸어가고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북행길, 통일예국의 길에 나섰다.

백범 김구가 타친 고백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겨레가 타치는 심장의 뱀침이었고 열렬한 격정이였다.

그의 시구절이 남긴 여운은 온 겨레의 가슴에 크나큰 의미를 심어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예국의 길이며 민족의 살길이라는 생의 진리이다.

통일에 살고 예국에 살자면 절세위인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수십년전 한장의 사진이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통일에 살고 예국에 살자면 절세위인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수십년전 한장의 사진이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혼연일체의 현상, 그곳의 진실》 (1)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력사학교수께서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침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평등자와 국민의 혼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인도 재현해낼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유일하게 독점한 천하유일의 체제이고 핵무기도 당해낼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평등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평한 글이라고 본다.

물론 인화와 단합은 어느 사회에서나 바라는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조선과 같이 평등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나라가 없다.

한다면 원자탄보다 더 강한 힘이 라고 세인이 일컫는 공화국의 일심단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다고 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생활의 작은 세부들을 통해서도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그 감동깊은 현실을 체험할수 있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구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체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

도 다 생각나.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것이 아니였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것이였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순히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가시기 위한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

통제로 기술여사라도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이 나라의 북변천리에 불과 몇달만에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솟아올랐다.

북방의 설한풍과 폭우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새집들에 피해지역의 수만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게 되었으며 새로 건설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에서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량랑히 울려져가게 되었다.

주인이 허물어버린 집

라선시평해지역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치기 위한 기적창조장소나가던 2015년. 일부 사람들이 조금만 보수하면 될 집을 제손으로 허물어버려 주위사람들에게서 핀잔을 들었던.

그러던 어느날 라선시평해복구건설장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문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한다고,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음이라고 하시었다.

이와 같은 일이 함북도북부평해지역에서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보수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집을 제손으로 허물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닦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이 제손으로 제 집을 허문것은 그만큼 우리 당을 믿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대해같은 도량과 야량이로 못한 자식, 잘난 자식 차별이 없이 따듯이 품어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 그들에게도 새집이 차려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연선

